

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19. 9. 30(월) 11:40 (총 5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김병춘 예보팀장 조군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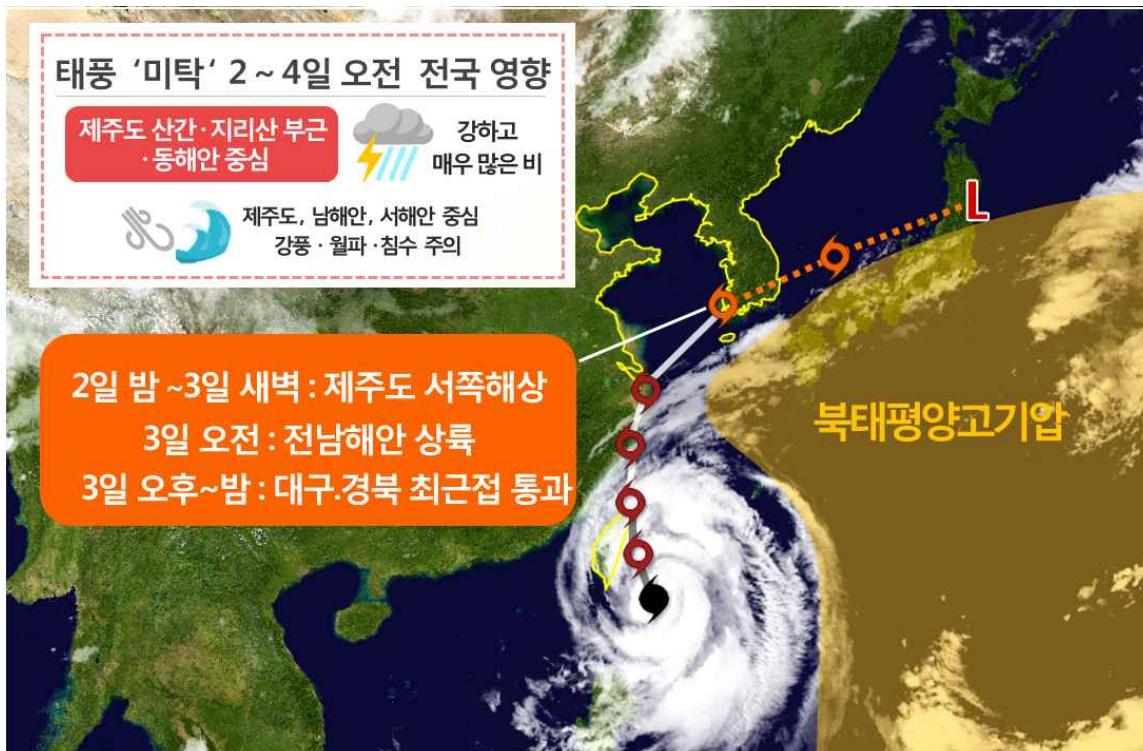
전화번호

053-956-0365

제18호 태풍 '미탁(MITAG)' 현황 및 전망

○ 10월 2일(수)~4일(금) 오전 [전국 태풍 영향]

- 제주도 산간 600mm, 지리산 부근 400mm 이상 강하고 많은 비 주의
- 전국 대부분 지역 매우 강한 바람,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주의
- 전해상 최대 9m 이상 매우 높은 파도, 침수 및 월파 주의



태풍 '미탁' 예상경로(2019.09.30. 10:00 발표)

[태풍 현황과 전망]

- (현황) 제18호 태풍 '미탁(MITAG)'은 30일(월) 09시 현재, 강도 중 (최대풍속 32m/s(115km/h), 중심기압 975hPa), 크기 중형(강풍 반경 320km)의 세력을 유지하며, 타이완 남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.
- (예상 진로) 앞으로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30일(월) 밤에 대만 부근 해상을 지나 10월 2일(수) 오전에 상해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. 이후 북동쪽으로 진행방향을 틀어 점차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여 2일(수) 밤~3일(목) 새벽에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, 3일 오전에 전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후 태풍은 점차 북동진하면서 남부 지방을 통과하여 3일 밤부터 4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.
- (예상 영향) 한편 태풍은 10월 1일까지 27~28도의 높은 온도의 해수 구역을 지나기 때문에 앞으로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 하겠고, 이후 제주도 남쪽해상으로 접근할 때 중급 강도의 소형 태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나 태풍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이 강한 비바람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
[강수 전망]

- 태풍이 점차 우리나라로 접근함에 따라 30일 오후(12~21시)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. 1일 새벽(03~09시)부터 다시 이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, 2일 오후(12~15시)에 충청도와 남부지방,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어 3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이후 태풍이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4일(금) 경,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의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.

* 예상 강수량(10월 1~3일)

- 제주도: 150~300mm(많은 곳 제주도산지 600mm 이상)
- 남부지방(대구.경북 포함), 강원영동(~4일): 100~200mm
(많은 곳 지리산 부근 400mm 이상, (~4일)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300mm 이상)
- 중부지방(강원영동 제외), 북한: 30~80mm(많은 곳 120mm 이상)

- 태풍이 접근하기 전, 30일 오후~1일은 태풍으로부터 강하게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기존에 우리나라에 머물던 찬 공기를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.
- 이후 2~4일은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, 지리산 부근,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~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제주도산지 최대 600mm,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, 동해안도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

[강풍 및 풍랑 전망]

- (강풍 주의) 1~4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,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이 시속 126~162km(초속 35~45m)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,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54~108km(초속 15~30m)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 건물·공사현장 등에서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,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및 낙과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.
- (풍랑, 월파 주의) 1일은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시작으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상, 서해남부해상까지, 2~4일은 전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7~9m 이상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.
- 특히, 10월 2일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며, 2일 새벽은 만조시간까지 겹치는 시기(① 천문조로 인한 바닷물 높이 증가)로, 태풍의 영향으로 물결이 높아지는 시기(② 기상조로 인한 바닷물 높이 증가)와 겹치기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,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, 그 밖의 해상 안전사고, 양식장 시설물 피해 등에도 대비하기 바랍니다.

[태풍 '타파' 피해 지역 대비 철저]

- 태풍 '미탁'이 남부지방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이전에 태풍 '타파'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와 남부지방, 동해안은 태풍 '미탁'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니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

[향후 변동성]

- 현재 태풍의 경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의 경계를 따라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져 가장자리가 서쪽으로 더욱 확장할 경우, 태풍의 이동경로가 다소 서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이로 인해 ①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지점이 예상보다 북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, ② 중부지방에 예상되는 태풍의 영향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적극 참고하기 바랍니다.